# 불교 지성, '상월결사'를 논하다

**대중공사 세미나**
**상월결사 의미와 과제**

상월선원 만행결사 순례단은 10월 15일 문경STX리조트 그랜드볼룸에서 '상월결사의 시대적 의미와 과제' 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불교계를 대표하는 출 · 재가 불교학자들이 상월선원 천막결사와 만행결사의 전반을 분석하는 소논문을 발표했으며, 상월선원 회주 자승 스님을 비롯해 순례단 대중은 이를 경청했다.

문경=신성민 기자




상월선원 만행결사 순례단은 10월 15일 문경STX리조트서 '상월결사의 시대적 의미와 과제' 를 주제로 대중공사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노덕현 기자

## "붓다 정신을 계승한 구법 결사"

### 자현 스님 '수행과 전법의 길로써 상월결사'



**중앙승가대 교수 자현 스님**은 '수행과 전법의 길로써 상월결사' 발제를 통해 상월선원 천막결사가 고려시대 지눌의 수선사 결사 정신이 온축돼 있으며, 만행결사 역시 붓다가 강조한 순례의 정신이 연결돼 있음을 강조했다.

"한국불교가 영향력을 잃어가는 것은 불교의 문제가 아니라 이를 운용하는 승려의 문제"라고 지적한 자현 스님은 고려불교를 변화시킨 지눌의 수선사 결사와 2년 7개월 동안 고려에 머물며 무생계를 설한 인도 승려 지공선현의 일화를 예로 들고, 변화의 지향점을 제시했다.

자현 스님은 "지눌의 개창 이후 약 170여 년 만에 송광사는 동방제일도량이라는 최고 존칭으로 불리게 된다. 이는 지눌이 추구한 선수행과 청정성의 회복이라는 결사 운동이 고려불교에 강력한 족적을 남겼음을 의미한다"면서 "천막결사라는 최소를 통한 청정과 무문관이라는 치열한 수행은 지눌과 지공을 결합하는 최상의 가치를 도심 속에서 구현한 현대불교의 획을 긋는 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10월 7일 입재법회를 갖고 본격적으로 시작된 만행결사에 대해서는 〈유행경〉 등 8종의 열반 문헌에서 그 기원이 확인됨을 설명하고 순례의 가치를 오늘날에 되살리고 있다고 자현 스님은 강조했다. 또한, 당나라 현장 스님의 인도 구법행의 특징을 교육과 순례에 있음을 상기시킨 자현 스님은 "현장의 인도 구법은 교학적 공부와 실천적인 성지순례의 두 가지 목적으로 이뤄졌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구법의 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스님은 "현장은 유식학의 수학과 천제도수의 성지를 참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며 "만행결사의 대상이 인도이며, 하루 30km의 순례와 더불어 매일 같이 1~2시간의 교육 및 토론이 진행되는 구조는 진정한 구도의 길을 상기시킨다. 이는 21세기의 진정한 구법행"이라고 주장했다.

## '중생 찾아가는 불교'로의 선언

### 혜명 스님 '국난극복의 길로써 상월결사'



**동국대 경주캠퍼스 교수 혜명 스님**은 '국난극복의 길로써 상월결사,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뉴 노멀을 모색하다' 발제를 통해 상월선원이 보여준 일련의 결사들은 "기존의 '중생이 찾아오는 불교' 가 아닌 '중생을 찾아가는 불교' 로의 전환을 선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선, 혜명 스님은 상월결사가 태동한 중요한 역사적 배경으로 중생에게 유리(遊離)돼 중생이 찾아오지 않으면 중생에게 다가갈 수 없었던 600년 산중불교 프레임을 꼽았다. 또한 현대 한국불교가 타성에 젖어 산중불교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시대와 사회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도 배경으로 제시했다.

혜명 스님은 상월선원 천막결사는 "부처님 성도지 부다가야를 상징으로 채택함으로써 부처님 성도가 가진 본래 정신을 구현하고 불성도(佛成道)의 본의를 좇아가기 위한 것"이라고 봤으며, 만행결사는 "부처님의 행화(行化)를 놓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했다.

그러면서 혜명 스님은 상월결사를 새로운 불교로의 전환을 선포한 일종의 선언이라고 했다.

스님은 "상월결사는 위례신도시 건설 현장 가운데 비닐 천막으로 지어진 선원에서 외호대중이 시끌벅적한 야단법석 가운데서 진행된 동중정(動中靜)의 새로운 결사방식을 제시했다"면서 "이는 중생과 유리된 불교가 아니라 중생에게 한걸음이라도 더 다가서는 불교가 되겠다는 서원을 표출한 것이며, '중생을 찾아가는 불교' 로의 전환을 선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상월결사의 두 번째 행보인 '불교중흥 · 국난극복 자비순례' 는 코로나 시대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불교 진로를 모색하며, 동시에 국가와 세계가 맞닥뜨리고 있는 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 시대에 맞는 불교로의 새 변화

### 황순일 '상월결사의 역사적 의의'



**황순일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불교대학장)는 '상월결사의 역사적 의의' 발제를 통해 상월선원 일련의 결사들이 현대에 맞게 요구되는 변화의 지향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석했다.

이에 대해 황 교수는 " '앉은 불교에서 움직이는 불교로, 침체된 불교에서 활기찬 불교로, 소극적 불교에서 적극적 불교로, 미래불교는 사부대중이 함께하는 불교' 라는 상월결사의 신념은 시대적 변화와 요구에 불교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변화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특히 상월선원 천막결사에 대해 황 교수는 승가와 재가가 상호보완적 구조를 보여준 사례라고 상찬했다. 그동안 출가자는 수행을 위해 안거 기간 스스로를 세상으로부터 고립시키고 재가자는 접근이 안됐으나, 상월선원 천막결사는 이를 벗어났다는 것이다.

황 교수는 "결사에 참여한 스님들이 청규에 따라 용맹정진하는 동안 결사를 외호하는 스님들과 재가자들이 상월선원에 와서 천막결사를 응원하고 보시하여 올바르게 공덕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왔다. 한국적 승가와 재가의 상호보완적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황 교수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만행결사 자비순례에 대해 1930년 '사띠야그라하' 를 표방하고 24일 동안 390km를 걸었던 간디의 '소금 행진' 과 연결된다고 봤다. 간디의 소금 행진은 영국 정부의 소금 독점과 과세에 대한 비폭력 저항운동으로 78명의 지지자로 시작해 행진이 끝날 즈음에는 동참자가 6만 명으로 늘어났다.

황 교수는 "간디의 소금행진은 정치 · 사회적 요구로 출발했지만, 만행결사는 지극히 불교적인 발원과 오랜 순례 전통에 바탕을 두고 있다"면서 "이번 만행결사는 한국불교가 스스로 변화하겠다는 것을 널리 알리고 불교의 새로운 미래를 담보하는 장대한 여정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 불교 지성들이 말하는 상월선원

주요 발제 이후에는 9명의 불교 지성들이 자유롭게 상월결사에 대한 논평과 제언을 했다. 이를 간략하게 정리했다. (가나다순)



### 평화 · 통일순례로 확장을

**김용현** 동국대 교수

현재의 상월결사는 대중 속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려는 출 · 재가가 함께하는 결사운동이다. 인도만행결사가 원만성취 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이라면 자비순례를 통일 · 평화순례로 확장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신계사와 장안사, 유점사, 표훈사를 순례하는 금강산 만행결사와 고성서 파주까지 250km에 이르는 DMZ평화순례를 제안한다. 평화, 생명 공동체는 미래불교가 나가야 할 길이다.



### 불교 변화 이끄는 시발점

**김성규** 한국교수불자연합회장

앞선 상월선원 천막결사가 부처님 안거이고 이번 만행결사는 안거를 마치고 수행자들이 유행하며 전법하고 수행하는 모습에서 출발했다고 할 수 있다. 바야흐로 4차 산업혁명시대다. 탈종교현상이 급격히 일어나는 상황에서 상월결사는 이 시대의 불교가 어떻게 콘텐츠를 개발할지를 계속 고민하게 한다. 이 같은 고민들은 한국불교의 흐름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



### 상월결사, 내게 던지는 화두

**석길암** 동국대 교수

상월결사 시작 후 주변에서 '그것을 왜 하냐' 고 묻는다. 무성의할 수 있지만, 이 질문은 원력과 자성에 대한 첫 발걸음이다. 나 역시 결사가 이뤄지면서 '불자로서 제대로 살고 있는가' 를 계속 되묻고 있다. 불교학을 공부하는 학자임에도 그동안 이 같은 질문들을 하지 않았던 것 같다. 불자로서 제대로 살고 있는지는 이 순례를 보면서 우리들이 가져야 할 고민들이다. 이런 고민들을 함께 하며 세상을 변화시켰으면 한다.



### 자비순례 좋은 결실 맺길

**송일호** 동국대 불자교수회장

오늘 발제문 중 자현 스님이 말씀하신 "거대한 종교라도 고착화되고 타성화되면 역사 속에서 사멸하게 된다"는 지적이 깊게 와 닿았다. 현대사회에서는 부처님 가르침이 산중이나 경전 속에 매몰되면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혜명 스님의 "이번 만행결사는 중생에게 찾아가는 순례불교의 시작"이라는 해석도 깊이 공감한다. 이번 자비순례가 좋은 결실을 맺어 현대를 살아가는 불자들에게 힘이 됐으면 한다.



### 부처님 가르침 體化 현장

**안양규** 동국대 불교문화대학장

〈열반경〉에서 부처님은 자신의 입멸 후 어떻게 살라고 했을까. 부처님께서는 "법과 율을 스승으로 삼으라" 고 하셨다. 수천개의 탑을 짓는 것보다 한 사람이라도 부처님 가르침을 정확히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상월선원 만행결사 자비순례에 동참한 사부대중 한 명 한 명이 부처님 말씀을 체화(體化)해 이를 다른 도반과 사회에 전달하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 세상을 밝히는 불씨가 되길

**이병두** 前 문화체육관광부 종무관

상월선원 만행결사 자비순례를 출발할 때 모두가 똑같은 마음은 아니었을 것이다. 하지만 500km 자비순례를 마치면 대다수가 같은 생각으로 모아질 것이라고 믿는다. 동참자 스스로 자신을 변화시키고, 도반 · 문중 · 종단을 변화시킬 것이다.

부처님께서 부다가야에서 전법의 길을 떠나실 때에는 혼자였다. 순례 대중들도 부다가야를 떠나는 마음으로 순례의 길에 올랐을 것이다. 작은 불꽃 하나가 온 세상을 밝힌다.



### 새 수행 문화 정착의 계기

**임승택** 불교학연구회장

'국난극복 자비순례' 와 '상월결사' 를 키워드로 포털사이트에서 뉴스검색을 해봤다. 첫 번째는 의미를 찾는 것이고, 두 번째는 참가의 소회였으며, 세 번째는 우려와 걱정이었다. 네 번째는 결사의 의의를 찾는 것이었고, 다섯째로 비판의 시선이 있었다. 마지막 여섯 번 째 시선은 순례에서 희망을 찾으려 한 것이다. 대부분이 결사의 원만회향을 기원하고 있다. 상월결사가 새로운 수행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 법고창신 결사운동 모델

**조기룡** 동국대 교수

상월결사의 태동은 상월선원 회주 자승 스님이 지난 2011년 총무원장 재직 당시 시행했던 '자성과 쇄신결사 운동' 에서부터다. 자성과 쇄신결사 운동 이후 상월결사가 당대의 불교계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역대 전통결사와 같은 배경이지만 그 방법을 정적인 것에서 동적인 것으로 변화시켰다. 이는 옛 것을 본받아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법고창신의 결사운동임을 보여준다.



### 현대의 사회에 맞는 구법행

**최응천**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이사장

이번 만행결사 자비순례를 보며 〈왕오천축국전〉을 쓴 구법승 혜초 스님과 〈삼국유사〉를 집필한 일연 스님이 떠올랐다. 일연 스님이 쓴 〈삼국유사〉 '탑상편' 은 전국 사찰을 직접 찾아다니며 쓴 기록이다. '탑상편' 에는 당시 경주를 '별을 뿌려 놓은 듯 절이 많았고, 기러기 줄 지어 가듯 탑이 많았다' 고 기술하고 있다. 현재 자비순례는 일종의 구법행이다. 이에 동참하는 사부대중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